



인도민을 위해 20년 예전의 선교사역을 떠나는 이희훈 목사. 특수목회 수업을 인상적이었던 그는 삼보일도를 마친 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싫어 인공목숨을 대신받기로 했다

지난해 3월 28일부터 5월 31일, 전북 부인의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 시청 앞까지 진행된 '새만금 생명명화를 위한 성직자 삼보일배' 당시, '삼보일배(三步一拜) 대신 삼보일도(三步一禱)'를 계속한 성직자가 있다. 불교 수경승보, 천주교 문규현신부, 일불교 김경일 교무가 세 걸을 걷고 한번 절하는 사이, 나무 십자가를 든 채 세 걸을 걷고 한번 무릎꿇은 채 기도했던 이희훈(42·전주나사교회) 목사. 삼보일도를 하는 동안,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보고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고, 수요예배와 일요예배 또한 반드시 참석해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로부터 '울사'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가 선교사역을 위해 10일 인도로 떠난다.

# “카스트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

내일 인도로 '달빛' 선교활동 떠나는 이희훈 목사

<최희계출 불기축 전민>

■ 앞으로 20년 동안 '달빛(카스트 제도)의 4개국, 즉 브라질, 크사티리아, 바이사, 수드라에도 까지 뜻하는 최하계층 불기축 전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게 된다는 결심에서다.

38년 신임선교훈련을 하면서 공장에서 막노동할 때부터, 캄보디아나 르완다 등 제3세계 민중선교를 꿈꿔 왔지요. 그러던 중 2000년 인도를 여행하면서 천민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빈부격차 등을 보고 경악하고 절규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사탄의 제도이니 만큼 누군가 깨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점차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

다. 이 목사는 8월 문화일보의 전 화보에서 '인도 26개 주에 사회선교센터 건립', '26개 사회선교센터를 주축으로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인도인 장장년 지도력 육성', '인도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서민과 함께 하는 선교', '하나님이 주신 창조생명의 농사를 위한 생명농업교육 훈련' 등의 7개 선교목표의 개략도 밝혔다.

인도로 가겠다는 큰 동기 중의 하나가 카스트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민중, 사회개혁에 대한 꿈이 없을 리 없다. 7개 목표를 관통하는 단어가 예루살렘, 즉 교회일지지만 저변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보수주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기독교 외에는 구원 없 없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원리주의자의 모습이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우월감이나 현지인에 대한 무리한 선교로 반감을 자아낼 생각도 없다.

“다종교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로 우리가 사랑하고 공존하여 여겨야 할 '이웃'입니다. 삼보일도 당시, 철저한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타종교와의 교제와 대화로 제 신앙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타종교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라는 것, 그들도 신과 인류의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드러내는 것으로 선교활동을 펼쳐 계획입니다.”

전북 안주 출신인 그는 지난 94년 전주 나사교회를 개척한 이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빈민과 고령자는 이들을 위해 헌신해왔다. 99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는 외국인노동자선교와 영교를 주축으로

일을 하는 한편, 기독교생명연대 사무처장을 지내고, 생명생명을 창립했으며 새만금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생명선교 활동도 열정을 쏟아왔다. 삼보일배 참여 성직자를 지원했던 다른 종교와 달리, 대부분 비탄의 회상을 퍼부었던 한국 교회에 대해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이웃을 앞에서 결사할 때만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돼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메일 lordfighters@daum.net

김종필기자 jirim@munhwa.co.kr

## 경기도 문예회관 '문화의 전당'으로

오는 11일 출범식 갖고 비영리재단법인화

■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 문화의 전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경기도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현 문예회관을 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1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건립되고 있는 국악당(사

진)도 다음달 1일 개관한다. 총 481석 규모의 국악당은 첨단설비를 갖춘 공연장으로 국악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한 국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산하에 극단을 비롯, 4개 예술단체(단원 263명)와 법인직원 11명으로 운영되며 도민의 문화육구 충족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게 된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 법인화로 인한 업무자유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또



도민들을 위한 문화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공연인 '모세할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기도 문화의 전당' 예술단원이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과 문화교육을 위한 만남을 갖는 '멘토 프로그램' 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필기자 zerckim@

##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⑦ 위험사회 한국의 문화적 리모델링

# 문화혁명의 시대 왔다

1. 문화위험사회화

지난 50여년간 우리는 권력의 교체 아래 실 틀 없이 경제성장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최단시간에 1만불 시대에 도달했지만 그 대가는 전 국민의 육체·감성·인성·상상력·창의력의 탕진이었다. 최근 10년간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도 진정한 성장동력인 국민의 문화적 역량 자체가 거의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쟁력이란 낮게 공장에서 생산한 자원의 가치지 총량(A)만이 아니라 발에 공장 밖에서 개인이 문화적 역량을 재충전한 비가치적 결과(B)를 합한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A에서는 세계 11위에 달하지만, B인 국민소득은 40위라고 한다. 나아가 삶의 질과 문화적 역량이 더 정량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A·B간의 괴리가 커질 경우 사회적 붕괴의 위험이 커진다.

## 경제제일주의로 국민의 문화 역량 소진 문화영향평가 통해 국정 리모델링 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오염과 지하철 암사 같은 문명적 위험원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사회문화적 위험원이다. 학교폭력과 '왕따', 가족과 인종교제 및 위생문화, 정규규칙과 비정규직의 전도, 정치적 부패와 모델 해지드 만연 등이 그것이다.

2002년 월드컵 광장문화에서 촉발된 다양한 촛불시위와 최근의 탄핵반대 시위 등은 이런 '문화위험사회화'에 대한 국민 다수의 자발적 저항이자 창조적 대응이었다. 그러나 이 힘을 바탕으로 등장한 '참여정부'마저 경제제일주의에 종속되고 있어, 정부와 국민적 요구 사이의 간극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2. 국정과 사회의 문화적 리모델링

위험사회화를 방지해온 그간의 국정운영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문화적 역량향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치유해 및 창조적 대안 제시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총괄 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교육정책의 문화적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현재 청소년들은 인사이드아웃으로 감성과 인성의 황폐화와 신체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학교와 사회가 이를 자유할 수 있다면 미래 세대는 생존경쟁

형 '인식 기계'로 변질될 것이다.

21세기 지식사회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홍수'로 진통하는 사회다. 때문에 지식의 '양'이 아니라 '가치'를 판별하고 창조하는 판단력과 창의성이 역점을 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역능을 키워내는 '문화교육'이 그것인 바, 사회문화적 위험사회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이다. 이때 전제될 것은 '문화' 개념의 재구성'이다. 현재 지배적인 것은 엘리트주의, 경제주의에 쫓겨 상품소비문화이자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능을 증진하는 생명력 넘친 문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3. 문화 개념의 재구성

문화 개념을 '문화적 역능'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은 문화를 작품이나 문화상품 같은 '명사형'이 아니라 창의적인 능동적 활동이라는 의미의 '동사형'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런 동사형 문화 개념은 정

신문화, 물질문화 같은 명사형이 아닌 대상화되고 고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대상-주체, 환경-주체, 주체-주체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한 상황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또 지식만이 아니라 감성·인성·상상력·창의력·신체적 감각 등 다양한 능력들의 복합적 균형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화적 역능' 개념은 주체를 단일한 실체가 아닌 이질적 능력들의 역동적 결합이라는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현재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넘어 문화민주주의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은 국민 다수가 그간 억압해온 자신의 다양한 문화적 역능을 사용용 권리를 자각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역능' 개념은 이렇게 사회가 강제해온 '명(物)인 수'에 대한 자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혁명적 함의를 지닌다. 21세기가 정치혁명의 시대면 이 시대가 문화혁명의 시대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상현 (한국예술총합학교 영상영상·문화현대 집행위원)

관중=최희계기자 hanan@